

### 3. 병원재무관리

#### • 단원별 요약정리

현대 재무관리의 목표는 부(富)의 극대화이며 이는 곧 기업가치의 극대화라 말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존속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 물론 기업은 이윤이 많을수록 기업의 존립과 성장이 보장이 되며, 경영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가격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현금흐름의 자금수지의 균형이 있어야 하나 기업의 목표는 주주들의 부(富)의 극대화가 재무관리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 I 재무제표, 유동성, 레버리지(leverage) 분석 등

### 1. 재무제표

#### 1) 재무관리 주요 공식

※ 재무제표와 경영 간의 용어 비교표

재무제표	경영
자산총계	총자산
부채, 자본총계	총자본
부채총계	타인자본
자본총계	자기자본
유동부채	단기(조달)자본
비유동부채 + 자본총계	장기(조달)자본
비유동유형자산	시설자본
유동자산	운전자본
유동자산 - 유동부채	순운전자본(Ⅰ)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부채	순운전자본(Ⅱ)

## 2) 재무비율 분석

### (1) 안전성 비율

①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s): 단기채무의 변제 능력이 충분한가를 측정(유동비율, 당좌비율, 순운전자본 구성비율)

- 유동비율: 단기채무의 변제능력이 충분한가를 측정하기 위한 비율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나치게 유동자산을 보유하면 자금의 유희화로 인하여 수익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흑자도산은 유동성이 극히 나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150% 이상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의 변제능력이 충분한지를 측정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좋다. 유동자산 > 유동부채일 때 안정성이 있다.

- 당좌비율: 유동비율에 대한 보조비율로 현금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비율도 높을수록 좋다. 당좌자산에는 현금예금, 유가증권, 의료미수금, 받을어음 등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자산이 포함된다. 유동비율이 높더라도 당좌비율이 낮으면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 (유동자산 - 재고자산) / 유동부채 × 100

- 당좌비율은 유동비율의 보조비율로 현금화 속도가 빠른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것으로 유동비율이 높아도 당좌비율이 낮으면 지급능력이 불량하다(일반적으로 요구 당좌비율은 100%이다).

②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비율: 타인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한다(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비유동(고정)비율, 이자보상비율).

- 부채비율 = 부채 / 기본재산 × 100

-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부채비율 = 부채 / 기본재산 × 100 → 100% 이하

-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가 바람직하다.

-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채권회수 안전도가 높다.

-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다.

※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기대되는 채무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유동성장기부채, 미지급비용 등이 있다.

※ 비유동(고정)부채는 상환기일이 재무제표작성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 금융리스미지급금,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의학교육연구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 있다.

- 비유동(고정)비율 = 비유동(고정)자산 / 자기자본 × 100

- 비유동(고정)장기 적합률 = {비유동(고정)자산 / [자기자본 + 비유동(고정)부채]} × 100 → 100% 이하

- 자기자본비율(%) = 기본재산 / 총자산 × 100

- 이자보상비율

- 이익에 비해 이자지급액에 대한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고,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급에 문제가 적어진다.

- 이자보상비율 = (세전순이익 / 지급이자) × 100

※ 이자보상률이 낮다면 이익에 비하여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이 크다.

## (2) 활동성 비율(activity ratios)

병원이 수익획득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표시[총자산(=총자본)회전율(기간), 재고자산회전율(기간), 유형자산회전율(기간), 의료미수금회전율(기간), 순운전자본회전율(기간), 자기자본회전율(기간)]

- 총자본회전율(회) = 의료수익 / 총자본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의료수익) / 총자산

- 자기자본회전율 = 의료수익 / 자기자본 × 100

- 순운전자본회전율(%) = 의료수익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순운전자본(working capital):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fund)이다. 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을 뜻하기도 하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

## (3) 수익성 비율(profitability ratios)

병원의 이익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병원활동의 결과를 집약한 경영성적을 측정. 수익, 총자본, 환자수 등이 전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총자산(=총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 자기자본 의료이익률 = 의료이익 / 자기자본 × 100

- 총자본 의료이익률 = 의료이익 / 총자본 × 100

## (4) 성장성 비율(growth ratios)

수익, 총자본, 환자수 등이 전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의료수익증가율, 총자본증가율, 환자증가율)

- 이자보상비율 = [(당기 총자본 - 전기 총자본) / 전기 총자본] × 100

## (5) 생산성 비율(productivity ratios)

병원경영을 위해 투자된 자산과 인력 등 의료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의 구성요소들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입원환자 1인당 부가가치, 병상당 월평균 부가가치, 총자본 투자비율, 인건비 투자효율, 의료기기 투자효율, 전문의 1인당 월평균이익 및 입원환자수, 100병상당 직원수, 입원환자 100명당 직원수). 환자진료실적 비율: 입원환자 외에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환자진료실적을 분석하는 지표(외래환자 초진율, 외래환자 입원율, 병원이용률, 병상회전율, 평균재원일수)

## 2. 유동성(流動性)

### 1) 유동성 관계 비율

- 유동성은 단기채무를 상환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재무비율이다.
- 유동비율은 병원의 유동자산으로 단기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다. 유동비율은 은행대출 시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한다.
- 의료미수금 對(VS) 재고자산비율은 재고자산에 비해서 의료미수금이 몇 배인지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text{의료미수금} / \text{재고자산}) \times 100$
- 의료미수금 對(VS) 매입채무비율은 매입채무에 비해서 의료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text{의료미수금} / (\text{지급어음} + \text{외상매입금}) \times 100$
- 재고자산 對(VS) 순운전자본비율은 순운전자본에 비하여 재고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text{재고자산}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 2) 유동성 이해

- 병원의 단기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말한다.
- 병원의 단기지급능력을 의미하므로 현금화가 빠르다.
- 유동성이 좋다는 것은 유동부채에 비해 유동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있다.

### 3) 유동성 악화사유

- 장기자본조달 곤란으로 단기부채 조달
- 외상매입금 조기 상환
- 유동자산 감소

### 4) 재무구조 상태

- 좋다는 것은 총자본 중에서 부채비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 나쁘다는 것은 총자본 중에서 부채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레버리지(leverage) 등

### 1) 레버리지 분석

레버리지(지렛대)는 비유동(고정)자산의 사용으로 고정비이나 타인자본을 사용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지출하여 병원의 의료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① 운영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는 고정비가 총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의료수익이 오르면 의료이익 증가폭이 오르고, 의료수익이 낮아지면 의료이익의 감소폭이 높아진다.

• 의료수익 - 의료비용 = 의료이익(0)이 되는 점

②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는 총비용에서 고정재무비 중 총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 의료이익의 증감에 비해 확대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 타인자본의존도 = 부채총액 / 총자본

③ 결합레버리지(combined leverage)는 운영레버리지 + 재무레버리지를 한 것을 의미하며, 의료수익과 당기순이익의 변화 분석에 사용한다. 결합레버리지가 높으면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의료수익의 변화율보다 더 높고, 의료수익이 변동하면 당기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변한다.

• 총비용 - (고정비 + 고정재무비)의 비중

※ 의료비용의 구분: 고정비는 임차료 임금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용 등 의료수익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료비용이며, 변동비는 운영을 위한 임금, 원재료비이다.

## 2)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레버리지의 뜻은 지렛대 작용 혹은 “어떤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수단” 등으로 정의된다. 이를 경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연결하면 고정적인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고 추가적인 자산이나 자금을 얻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고정비를 받침으로 이용하여 추가적인 생산을 하거나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였을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과 이를 통해 추가로 얻어지는 수익을 비교하여 이익의 순수한 증가를 가져다주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기업에서의 레버리지는 영업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 시간레버리지의 세 가지로 흔히 구분된다.

①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 비교적 저렴한 코스트의 부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 코스트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을 얻기 위해 이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경영주에게 이익의 증가를 가져다주는 효과

• 재무레버리지(DFL) =  $EBIT / (EBIT - I)$

②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 한 단위의 추가적인 생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증가 효과

• 영업레버리지(DOL) =  $(TR - VC) / (TR - VC - FC)$

③ 시간레버리지(time leverage): 시간의 흐름과 각 제품의 순이익에의 공헌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생산제품에 대한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효과(재무관리 영역에서 벗어나는 개념)

## 3) 듀퐁시스템(DuPont system)

재무분석을 비율 간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보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듀퐁시스템(DuPont system)이다. 이는 듀퐁회사에 의하여 개발되어 193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양한 중

류의 재무비율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영업성과인 총자본이익율(ROI) 또는 자기자본이익율(ROE)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무계획 또는 통제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러한 듀퐁시스템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총자본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에 기초하여 경영자 및 임직원의 업적평가와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지닌다.

한편 듀퐁시스템은 자본수익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단기채무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위험변화에 대한 분석수단을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총자본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의 증가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영업위험 및 재무위험이 듀퐁시스템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또한 듀퐁시스템에 의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일시적 현상인지 또는 지속적 현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4~5년간에 걸친 분석을 통해 판단의 오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① 총자본이익률(ROI)을 이용한 재무계획 또는 통제기능기법이다.

※ ROI(return of investment) - 투자수익률

② 수익성비율(의료수의 순이익률)과 활동성비율(총자산회전율)을 결합하고 있어 양 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③ 경영자 및 임직원의 업적평가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 II

## 의료 수요조사 추정

### 1. 친화도(RI, relevance index)

• 친화도(RI, relevance index): 지역주민 의존도, 공급자 의존도, 시장침투 정도

- 어느 병원에서 퇴원한 어느 지역 주민의 연간실퇴원환자수를 그 지역 주민의 그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실퇴원환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 특정 지역의 의료 수요조사를 위한 진료권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 산출공식:  $(A \text{ 병원 퇴원환자수} / \text{진료권주민 연간 총퇴원환자수}) \times 100$

• 어느 병원에서 퇴원한 어느 지역 주민의 연간 실퇴원환자수를 그 지역 주민의 그 지역 내 전체 의료 기관의 연간 실퇴원환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 2. 소요병상수 추정

•  $RBkt = SPkt \cdot URkt / Ock \cdot 365$

• t년도의 추계기준 k의 소요병상수 = t년도의 추계기준 k의 진료권 인구계 × t년도의 추계기준 k의 입원의료이용률 / 추계기준 k의 병상이용률 × 365일

### 3. C.I.F(Cost Insurance & Freight)가격

- C.I.F(Cost Insurance & Freight) 선복인도가격에 운임 +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
- F.O.B(Free On Board) 선복인도가격(운임과 보험료 전가격)

※ 선복(船腹)인도가격은 물건을 사서 배(船)에 실을 때까지의 비용이다.

### 4. 개원 후 소요 운전자본 추계

소요운전자본(자기자본 + 타인자본)은 재고자산 선구매액, 의료미수금 증가분, 초기운영적자 등 있다.

### 5. 입원 병상수 계산

가동병상수는 허가병상과 달리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병실에 실제 투입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을 말한다.

- 병상수(病床數) 인정 - 일반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실병상, 보육기
- 병상수(病床數) 제외 - 수술실, 응급실, 분만실, 회복실, 신생아용 베지넷, 주사실, 인공신장실

※ 건강보험기준: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낮병동

### 6. 병상이용률과 병원이용률

- 병상이용률: 연재원환자수를 연가동병상수로 나눈 것이다.

※ 병상이용률은 (총재원일수 / 연가동병상수) × 100

- 병원이용률: 조정환자수를 연가동병상수로 나눈 것이다.

### 7. 조정환자

#### 1) 조정환자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비된 가치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며, 조정환자수 = 총재원일수 + 연외래환자수 × (외래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 /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로 계산된다.

- 조정환자 100명당 직원수는 평균재직직원수 / (일평균조정환자수 / 100명)이다. 100병상당 직원수와 조정환자 100명당 직원수는 비교 시 전자는 유사한 병상 규모의 타 병원에 비해 병상이용률이 낮거나 외래환자수가 적은 경우 직원수에 신뢰를 반영치 못하는 약점이 있으나, 후자인 조정환자 100명당 직원수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개념을 혼합시킨 조작환자로 분모를 계산함으로써 좀더 상대적으로 유용한 정보로 직원수의 유용한 정보는 후자인 것이 된다.

※ 100병상당 직원수는 평균재직직원수 / (평균가동병상수 / 100병상)이다.

※ 평균재원일수는 총재원일수/실입원환자수(실퇴원환자수)이다. 또는 (입원환자연인원수/입원환자실인원수)

- 2) 100병상당 직원수는 적는데, 조정환자 100명당 직원수는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다면 병상수에 비해 직원수는 적으나 환자수는 더 적기 때문이다.

### III

## 원가계산 등

### 1. 손익분기점(BEP, break - even point)

※ 손익분기점(환자수)  $BEPQ = TFC / P - V$   
 ■ 손익분기점(환자수) = 고정비(환자당 수익 - 환자당 변동비)  
 • 수익 - 비용 = 이익(zero부터 병원 이익)  
 • 수입 - 비용 = 수익(x), 수익 - 비용 = 이익(0)

#### 1) 손익분기점: 수익성 판단 유용한 지표

- ① 의료수익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의료비용을 보상하고 의료이익이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전환점을 말한다. 즉 환자에게 투여되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커지면 이 분기점은 자동으로 높아지게 된다. 즉, 손익분기점(Break - Even Point: BEP)은 일정 기간의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이 일치하여 의료이익이나 의료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환자수, 의료수익 또는 조업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의료수익이 손익분기점 이상이면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 이하이면 손실이 발생한다. 손익분기점의 결정요소는 의료수익, 의료비용 및 의료손익 관계를 도표에 의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도표를 손익분기도표라고 한다.
- ② 손익분기점은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이 동일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점의 의료수익 또는 환자 수로서 의료비용, 환자 수 및 의료이익(Cost Volume Profit: CVP)상호 간의 관계분석에 기초가 된다.
- ③ 손익분기점분석의 활용분야와 한계점: 활용분야는 병원의 적정의료수익규모 또는 적정환자수의 결정, 목표이익달성을 위한 의료수익 및 허용비용의 규모, 일정 의료수익 하에서 예상되는 의료비용과 의료이익의 규모, 수가변동이 의료손익에 미치는 영향, 고정비와 변동비의 변화에 따른 의료이익의 변화, 수가결정, 진료수준(진료량)의 결정, 설비투자가 의료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고, 한계점은 손익분기점분석에서는 의료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최소자승법 등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다수 기간의 자료가 필요하여 실무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의료수익, 의료비용 및 의료이익이 선형관계 즉, 단위당의 진료비와 변동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선형관계에 있다. 즉, 진료비와 단위당 변동비도 의료서비스량의 증감에 따라 다소 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정비도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면 일시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손익분기점분석이 원칙적으로는 단일서비스인 경우에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그러나 병원의 환자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환자 등으로 구성되고, 수많은 서비스가 복합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환자종별로 손익분기점 환자수를 계산해야 보다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숙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기적인 분석에 유용하며, 장기계획에는 적합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은 어렵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 공헌이익률 (1-V/P): 일정액의 의료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수익 중에서 고정비를 보상하고 의료이익에 공헌하게 되는 비율
-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 P - V): 고정비에서 변동비를 충당하고 더 나아가 병원의 의료이익창출에 공헌한다는 의미이다.

## 2) 손익분기점 분석의 이론적 전제와 실제적 한계

- ①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②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이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선형관계임. 단위당 변동비도 의료서비스량의 증감에 따라 다소 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정비도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면 일시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③ 손익분기점 분석이 원칙적으로는 단일 의료서비스인 경우에 매우 유용한 기법이나, 병원의 경우 다양한 환자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 3) 손익분기점(BEP) 설명 및 계산

- ① 손익분기점은 의료수익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의료비용을 보상하고 의료이익이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전환점을 말한다. 즉 환자에게 투여되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자동으로 높아지게 된다.

$$\text{※ 손익분기점(환자수)} = \text{고정비} / (\text{환자당수익} - \text{환자당 변동비})$$

- ② A병원의 고정비가 30억 원이고, 환자당 변동비가 40,000원, 환자당 수가가 100,000원 일때 손익분기점(BEP)상의 환자수와 손익분기점상의 수익

$$\text{○ 손익분기점(환자 수)} \text{ B E P Q} = \text{T F C} / (\text{P} - \text{V}) = \text{고정비} / (\text{환자당 수가} - \text{환자당 변동비})$$

$$\text{• 환자수} = 3,000,000,000 / (100,000 - 40,000) = 50,000\text{명}$$

$$\text{• 총수익} = \text{환자수} \times \text{1인당 수가} = 50,000\text{명} \times 100,000\text{원} = 50\text{억 원}$$

$$\text{○ 손익분기점(수익)} \text{ B E P Q} = \text{T F C} / (1 - \text{P} / \text{V}) = \text{고정비} / (1 - \text{환자당 수가} / \text{환자당 변동비})$$

$$\text{• 총수익} = \text{고정비} / (1 - \text{환자당 수가} / \text{환자당 변동비})$$

$$= 3,000,000,000 / (1 - 100,000 / 40,000) = 50\text{억 원}$$

③ M 병원에서는 최근 자기공명영상진단(MRI)장치를 구입하였다면 최소한 1일 몇 건 이상을 촬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계산

$$\text{손익분기점(환자수) } BEPQ = TFC / P - V$$

$$\bullet \text{환자수} = \text{고정비} / (\text{환자당 수가} - \text{환자당 변동비})$$

$$= 1,200,000,000 / (250,000 - 50,000) = 6,000\text{명}$$

$$\bullet \text{1일당 환자수} = 6,000\text{명} / 300\text{일} = 20\text{명}$$

④ 병원의 조정환자 1인당 진료비는 10,000원이고 고정의료비용은 1,000만원, 조정환자 1인당 변동의료비용은 5,000원이다. 이 병원의 손익분기점에서 조정환자수 손익분기점(환자수)

$$BEPQ = TFC / P - V$$

○ TFC: 고정비, P: 환자 1인당 일평균 진료비, V: 환자 1인당 일평균 변동비

$$\bullet \text{조정환자수} = TFC(\text{고정의료비용}) / P(\text{환자 1인당 일평균 진료비}) - V(\text{환자 1인당 일평균변동비}) = 10,000,000 / 10,000 - 5,000$$

$$\bullet \text{조정환자수} = 10,000,000 / 5,000 = 2,000\text{명}$$

## 2. 원가계산 등

### 1) 월가의 3대 요소

#### (1) 인건비

인건비란 의료수익의 창출을 위한 노동력의 소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요소이다. 즉 의료수익의 창출에 기여하는 전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항목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대학병원의 경우 의과대학과 병원소속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장례식장 운영인원과 같은 병원 부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소속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에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로 나뉘는데 직접인건비는 과별원가계산에 있어 과별 또는 특정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과별 또는 특정부문의 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이다. 교원, 수련의, 직원, 용역 인건비 등이 있다. 간접인건비는 과별 또는 특정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여러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가중심점별로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일정한 인위적인 기분에 의하여 원가중심점별로 배부시켜야 하는 인건비이다. 간접인건비에는 지정, 미지급인건비가 있다.

#### (2) 재료비

재료비란 원가계산에 이용하는 원가용어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인 재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재료비는 의료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를 측정척도에 의해서 파악한 금액을 말하며 원가계산목적에 따라 분류한다면 특정진료에 직접적으로 소비되느냐 간접적으로 소비되느냐를 기준으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눌 수 있다. 직접재료비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과, 검사, 일반진료, 의료소모품비, 외주용역재료비가 있으며 간접재료비로는 환자급식재료비가 있다.

### (3) 관리비

관리비란 의료수익의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및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수익창출의 목적을 위하여 소비되는 재무회계상의 비용이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관리비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관리비는 재료비, 인건비와 같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으며, 따라서 그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 즉 재료비와 인건비의 범위를 넓히면 그에 따라 자연히 관리비의 범위는 좁아지며, 반대로 축소하면 그 범위는 확대된다. 또한 재료비와 인건비를 비교할 때 그 구성내용이 다양하며 간접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관리비는 의료수익 창출을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상적인 진료과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것은 원가 계산상 관리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2) 병원원가 계산의 목적

의료수가의 결정, 경영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의 활용에 있다.

#### 3) 비용 분해(cost analysis)

- ① 개별비용법: 비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 ② 총비용법: 전기와 당기 또는 전월과 당월 같이 두 기간의 매출액과 비용 합계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는 방법
- ③ 산포도법(scatter graph): 매월의 매출액과 비용 합계를 그래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이 산재된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매출액의 증가비율에 따른 비용의 증가 경향을 포착함으로써 변동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신뢰도는 높지만 눈대중으로 나타난 그래프가 단순한 경향만을 나타내므로 객관성이 결여됨
- ④ 최소자승법: 산포도법에 의한 비용분해의 방법을 수학의 최소자승법의 공식을 사용해 풀어 놓는 방법이므로 신뢰도와 객관성이 모두 높음

#### 4)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원가로 계상되지 않는 항목

- ① 이상상태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정상초과 대손상각비, 파손비 등 화재, 도난 등 우발적 사고 손실, 소송, 벌금, 위약금, 연체료 등
- ② 투자자산 및 확장용 자산에 대한 제비용으로 투자부동산, 출자금 등의 관리비용 및 세금, 투자자산 평가손, 확장용 토지, 건물, 의료기기의 취득 관리를 위한 제비용 및 제세금 등
- ③ 이익으로부터 지불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출자임원의 상여, 퇴직, 급여, 창업비, 영업권 등의 상각비, 법인세, 소득세, 기부금, 증여금 등
- ④ 현금주의 회계를 택하고 있는 병원의 선급비용으로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등
- ⑤ 기타 지급이자, 할인료 등

### 5) 기타

- ① 보조부문은 수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부서를 말한다. 예) 교육연구 부문
- ② 의료원가 항목: 의학교육연구비용, 외주용역비용, 급식재료비용, 의료사회사업비
- ③ 감모손: 재고실사결과 손식분의 처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잡손실에 해당됨
- ④ 수익책임회계단위는 진료활동을 통하여 수익과 원가가 발생하여 집계되는 최소 단위이다.

### 6) 보조 부문비의 배부방법

- ① 직접배부법(direct allocation method)은 보조 부문에 집계되는 원가를 주요 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다. 계산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원가의 정확한 배부는 어렵다.
- ② 계제(階梯)식 배부법(또는 계단식 배부법, step-down method)은 각 보조 부문에 대해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문부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문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차례차례 배부해 가는 방법이다. 정확도가 비교적 높아서 복잡하지 않은 조직에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보조 부문의 배열순서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보조 부문의 수가 많을 경우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 ③ 상호 배부법(double distribution method)은 병원은 유기적인 조직체로 각 부문은 모든 부문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보조 부문의 원가를 해당되는 모든 부문에 적절히 배부하는 과정을 무한히 계속 반복해 가는 방법이다.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계산절차가 복잡하고 계산의 양이 많아서 컴퓨터에 의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 ④ 준계제식 배부법(semi-step-down method)은 원가 부문을 주요 부문, 진료보조 부문, 관리 부문, 의료사회사업 부문, 교육연구 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에 계제식 배부법을 적용하고 이들 내부의 책임 회계단위 사이엔 직접 배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 7)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ABC)의 단계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반 경제활동의 수행과정에 필요한 활동(活動)에 소요된 경제적 자원의 회생을 화폐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전통적인 원가계산과는 달리 활동에 기초하여 원가를 제품에 부과하여 효율적인 원가관리 방법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여러 활동들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각제품별로 활동소비량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원가계산방식에 비해 좀 더 합리적인 원가 배부를 목적으로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 ① 활동분석단계: 경영활동을 기술하고 그 활동의 원가 및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병원의 주요활동을 규명
- ② 활동별 원가집계단계: 제품의 제조작업에 수행되는 활동을 구분하고 각 활동별로 발생하는 제조원가를 집계함

- ③ 원가동인의 규명단계: 활동별로 원가동인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각 원가집적 대상에 배분하기 위하여 원가동인율을 결정함
- ④ 원가산출 및 원가계산단계: 각 원가집적대상에서 사용된 활동수에 원가동인율을 곱하여 원가를 계산함

## IV

## 사업계획, 예산 등

## 1. 사업계획

## 1) 화폐의 미래가치와 시간가치

## (1) 화폐의 미래가치

미래의 시점에서의 일정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현재의 일정시점의 가치를 환산한 것을 현재가치라 한다. 미래의 시점에서의 일정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현재의 일정시점의 가치를 환산한 것을 현재가치라 한다.  $P_n = P_0(1 + R)^n$  이며,  $P_0$ 는 현금,  $R$ 은 연간 이자율이다.

화폐는 동일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 즉 오늘의 10원과 내일의 10원은 그 가치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10원을 내일의 10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또한, 1년 후의 10원은 2년 후의 10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동일한 금액이라도 미래의 현금보다는 현재의 현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다.

화폐의 흐름과 시간과의 이러한 관계를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은행에 현금을 예금하면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것은 바로 화폐가 가지는 시간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 (2)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발생시점이 다른 현금에 대해 시간차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 일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환산을 위해 시장이자율이 사용되고 현재의 일정금액을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미래가치(FV future value), 미래시점에서의 일정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discount)해 현재의 일정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현재가치(PV present value)라 한다.

## (3)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는 척도

미래의 현금흐름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유동성선호를 반영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시장이자율이다. 시장이자율은 시간이 다른 화폐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또는 현재가

치를 미래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 (4)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가치 평가방법

- 내부 수익률법(internal rate return)
- 순 현재 가치법(net present value)
- 현재가치 지수법(present value index)

### 2) 투자가치 평가방법

#### (1) 전통적인 방법

- ① 평균이익률법은 투자기회에 대해서 예상되는 장부상 연평균 이익을 법인세차감 후로 계산하여 이를 최초의 투자액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이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안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흐름이 아닌 장부상의 평균순이익만 가지고 계산,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무시되어 현재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장부와 현금흐름 간의 세금효과(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절감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장부상 연평균이익을 법인세차감후로 계산하여 최초의 순투자액으로 나눈 것이다.
  - 장점은 계산이 간편하고 좋지 않은 투자안과 좋은 투자안을 쉽고 빠르게 선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단점은 첫째, 현금의 흐름이 아닌 장부상의 평균순이익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점, 둘째, 장부상 순이익의 절대액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적인 가치가 무시되어 현재가치의 개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장부상의 이익과 현금의 흐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의 효과,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법인세 절약액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

※ 투자안의 결정방법으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사 결정 기준이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방법이다. 종류는 회수기간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그 외에 회계적이익률법이 있다.

- ② 자본회수 기간법은 현금흐름을 통한 투자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자본회수기간(payback period) 즉, 투자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투자에 필요한 최초의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계산이 용이, 모든 사람의 쉬운 이해, 짧은 기간에 걸친 투자회수에 역점을 두므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용이, 자본회수를 통한 기업 유동성 강조 등이고, 단점은 투자액 회수 후, 계속 들어오는 현금 유입을 무시함(투자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나타내지 못함), 현금의 시간가치를 무시함, 투자의 회수만을 고려해 자금의 유동성만 강조하고 정확한 수익률은 무시함, 정확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고려치 않음 등이다.

#### (2) 새로운 방법

- ① 내부수익률법은 수익률, 이익률, 투자보수율 등으로 같이 사용하며, 어떤 투자안에서 예상

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장점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평균이익률법, 자본회수기간법보다 합리적).

- ② 순현재가치법은 할인현금흐름법 중 하나로, 어떤 투자안에 대해 현금유입을 최소한도의 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하고 현금유출도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해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하는 방법, 즉 순현재가치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독립적인 투자안의 채택 여부 및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이용이고, 단점은 복수 투자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상대적인 비교에 적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 ③ 현재가치지수법(수익성지수법)은 순현재가치법의 투자결정 방법인 절대치에 의하지 않고, 복수의 투자안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해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 방법이다.
- 비경제적 타당성 고려하여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라(판매자 중심 →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 판단해야 하고, 타당성이 없다면 비경제적인 요인이 경제적 타당성을 보충해 주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영리기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결정하지만, 병원은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강한 업종으로 경제성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 3) 내부수익률과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과 순현재가치법 중 대체로 자본코스트(기회비용)를 재투자율로 가정하고 있는 순현재가치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코스트는 병원의 정상적인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병원에 있어서는 여하한 경우여라도 자본코스트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든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모든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 바로 순 현재가치이다.

### 4) 이익계획

이익계획은 일정기간 중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 및 비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목표이익설정에 이용되는 방법

- 총자본이익률기준

총자본이익률 = 목표이익 / 총자본

목표이익 = 총자본 × 의료수익이익률

- 직원 1인당 순이익기준

직원 1인당 순이익 = 목표순이익 / 직원수

목표순이익 = 직원수 × 직원 1인당 순이익

- 필요자금기준      목표이익 = 필요자금
- 필요자금 = 자금운영 - 자금조달
- (자금운영 = 설비투자액 + 차입금반제액/
- 자금조달 = 감가상각비 + 출연금 + 신규차입금)
- ▷ 총자본이익률 = 목표이익 / 총자본 = 의료수익 / 총자본 × 목표이익 / 의료수익

## 5) 의료시장 구조

buyer's market 구조: 사용자(소비자) 중심의 의료구조 즉 환자 중심의 의료구조이다.

- ※ seller's market - 공급자 중심(의사), government's market - 공공병원 중심
- third party's market - 제3자(보험자) 중심
- ※ 소비자(×), 영리제(×), 공공제(○)

## 6) 구입과 임대 투자 결정

임대(lease)시 고려사항은 임대대상물을 구매할 자기자본의 소유여부, 해당 임대물의 내용년수, 해당 병원의 부담세율, 자기자본의 활용을 통한 이익률 창출 여부 등이다.

## 7) 목표관리기법(MBO,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관리기법(MBO)은 동기부여방법 중의 하나로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터 드러커(P. Drucker)가 1954년에 제안한 관리기법으로 조직전체의 목표와 각 부분의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전체의 목표와 부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관리자나 일의 담당자가 분담하는 일의 범위 안에서 개인목표를 스스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그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해가는 제도를 말한다. 즉,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동시에 각 개인의 자발적 의욕과 창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 MBO의 단계

- 경영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관리책임자는 부하직원에게 병원의 목표를 알려준다.
- 직원은 병원의 목표하에 자기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제시한다.
- 제시된 목표는 검토, 수정, 보완되어 채택된다.
- 채택 목표의 예산화 및 집행, 보고, 환류(feed back)

### (2) MBO의 효과

병원의 목적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수 있고, 직원 상하 간에 의견 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통제나 실적평가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직원 사기를 양양시키고 동기를 부여해 준다.

## 8) 사업계획

- ①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각종 계획 중 대부분의 병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는 환자진료계획, 비유동(고정)자산투자계획, 인력계획, 이익계획, 자금계획의 다섯 가지 계획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환자진료계획이다.
- ② 사업계획 대부분 사업계획은 1년간의 계획을 나타내나, 이를 장기간에 걸쳐 표현하면 장기사업계획, 즉 전략적 계획이 되며 이러한 전략이 병원에도 필요하다.
- ③ 장기전략 계획으로는 장기이익계획, 장기발전계획, 의학기술 확충계획 등이 있다.
- ④ 지출계획은 투자계획, 비유동(고정)자산 투자계획, 부채상환계획 등이 있다.

## 9) 예산편성

예산의 의미는 병원의 사업계획을 수량으로 표시하는 공식적 계획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량적으로 표시한 계획이며, 예측에 대해 경영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목표를 갖는다.

## 10) 예산의 단점

- ① 조직이 경직화되어 불의의 상황이나 잘못 예측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정태예산을 사용할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 ② 통제가 강화되므로 직원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의 수립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 ③ 할당된 예산은 전부 집행하여도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사고방식을 갖고 직원들이 임할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달성 가능한 목표를 낮게 책정 해놓고 이를 달성한 후에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11) 비영리법인병원 예산편성 지침

- ① 전략적 계획과 경영환경여건의 간략한 설명
- ② 당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 ③ 예산편성기준(각종지표)
- ④ 예산요구서 작성요령과 기준
- ⑤ 예산요구서 양식
- ⑥ 예산편성절차와 일정계획
- ⑦ 계정과목별 예산편성부서와 작성요령

## 12) 예산차이 분석

- ① 예산차이 보고서(예산통제)는 현재 병원활동이 예산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편성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 ② 예산차이분석 목적은 실적에 대한 예산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업무의 진척도를 측정하고, 차이의 원인을 명백히 해 시정조치의 자료로 사용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 신중한 예산집행과 인사고과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예산의 수정, 차기 경영계획 및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 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는 사후평가이다.
- ③ 예산차이 분석방법

- 수량(환자수)차이 = {예산(목표)환자수 - 실제환자수} × 실제단가
- 단가(환자1인당 진료비)차이 = {예산(목표)단가 - 실제단가} × 예산(목표)환자수

예산차이분석	수 익	환자 수
예 산	180,000	70,000
실 제	160,000	90,000
차 이	- 20,000	+ 20,000

- 수량(환자수)차이 = {예산(목표)환자수 - 실제환자수} × 실제단가  
환자수 차이 = (70,000 - 90,000) × 160,000 = - 320,000,000원  
- 환자수 증가에 따른 차이 32억 원
- 단가(환자 1인당진료비)차이 = {예산(목표)단가 - 실제단가} × 예산(목표)  
단가차이 = (180,000 - 160,000) × 70,000 = 140,000,000원  
-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차이 14억 원

## 13) 투자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변동계수는 평균에 상대적인 변동성의 양을 설명하는 산포의 척도이다. 변동계수에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표준편차 대신 단위가 다르거나 평균이 다른 데이터 집합들의 산포를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표준편차를 산술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즉, 표준편차를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 4. 재무비율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동성 비율 분석은 단기 채무능력을 나타내며,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으로 측정한다.
- ② 레버리지 비율 분석은 부채의존도를 나타내는 재무비율로 부채비율, 경영자본 순이익률 등으로 측정한다.
- ③ 활동성 비율 분석은 자산의 이용능률을 나타내는 재무비율로 총자산회전율, 비유동(고정)자산회전율 등으로 측정한다.
- ④ 성장성 비율분석은 의료수익증가율, 총자본증가율 등으로 측정되며, 병원이 성장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해설

- 유동성 비율: 단기채무의 변제 능력이 충분한가를 측정(유동비율, 당좌비율)
- 레버리지(leverag, 지렛대) 비율: 타인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한다(부채 대 총자본비율, 부채 대 기본자산 비율, 비유동(고정)비율, 비유동(고정)장기적합률).
- 활동성 비율: 병원이 수익획득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를 표시(자산(산)회전율, 자본(산)회전기간, 부채회전율, 부채회전기간)
- 성장성 비율: 수익, 총자본, 환자수 등이 전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의료수익증가율, 총자본증가율, 환자증가율)

## 5. 재무비율 중 부채 의존도를 의미하며 기업의 장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은?

- ①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
- ②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 ③ 효율성비율(efficiency ratio)
- ④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

## |해설

## 재무비율

-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 단기채무의 변제능력이 충분한가를 측정한다.
-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부채성비율이라고 한다.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 효율성비율(efficiency ratio): 활동성비율이라고 한다. 수익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 생산성비율이라고 한다. 수익, 총자본, 환자수 등이 전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

## 6. 재무비율 계산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②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 ③ 총자본회전율(회)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의료수익
- ④ 부채비율 = 부채 / 기본자산 × 100

## |해설

총자본회전율(회) = 의료수익/총자본

## 7. 재무비율의 공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 ② 자기자본비율(%) = 기본자산 / 총자산 × 100
- ③ 총자본 회전율(회) = 의료수익 / 총자본 × 100
- ④ 순 운전자본 회전율(%) = 의료수익 / 유동자산 × 100

## |해설

순 운전자본 회전율(%) = 의료수익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정답

4. ② 5. ② 6. ③ 7. ④

8. 비유동(고정)장기 적합률의 계산공식은?

- ① (비유동(고정)자산 / 기본재산) × 100
- ② {비유동(고정)자산 / (기본재산+비유동(고정)부채)} × 100
- ③ (비유동(고정)자산 / 총자본) × 100
- ④ (비유동(고정)자산 / 비유동(고정)부채) × 100

9. 비유동(고정) 장기 적합률은?

• 비유동(고정)자산: 80억원	• 기본재산: 50억원
• 유동자산: 20억원	• 비유동(고정)부채: 30억원

- ① 80%
- ② 100%
- ③ 150%
- ④ 200%

해설

비유동(고정)자산 적합률  
 • 비유동(고정)자산 적합률 계산공식: {비유동(고정)자산 / (기본자산 + 비유동(고정)부채)} × 100  
 • 비유동(고정)자산 적합률 계산: {80억원 / (50억원 + 30억원)} × 100

10. 부채비율의 산출공식은?

- ①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 ② 당좌자산 / 비유동(고정)부채 × 100
- ③ 당좌자산 / 부채총계 × 100
- ④ 부채 / 기본재산 × 100

해설

•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가 바람직하다.  
 •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채권회수 안전도가 높다.  
 •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다.

11. A병원의 유동자산은 100억원, 유동부채는 80억원 인데, 비유동(고정)부채 중 10억원은 1년 이 후에 상환해야할 부채인 경우의 유동비율은?

- ① 80.0%
- ② 125%
- ③ 111.1%
- ④ 91.8%

해설

유동비율공식  
 •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유동비율(%) =  $\frac{100\text{억}}{80\text{억}} \times 100 = 125\%$

12. 유동성(流動性)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동성이란 병원의 단기지급능력을 의미하므로 현금화가 빠르다.
- ② 유동성이 좋다는 것은 유동부채에 비해 유동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있다.
- ④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을 많이 증가시켜야 한다.

해설

기타 유동성 관계비율  
 • 유동성은 단기채무를 상환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재무비율이다.  
 • 의료미수금 對 재고자산비율은 재고자산에 비해서 의료미수금이 몇 배인지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의료미수금 / 재고자산) × 100  
 • 의료미수금 對 매입채무비율은 매입채무에 비해서 의료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의료미수금 / (지급어음+외상매입금)] × 100  
 • 재고자산 對 순운전자본비율은 순운전자본에 비하여 재고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재고자산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13. 경영분석을 위한 안전성지표로 활용되는 계산식은?

- ① (의료이익 / 경영자본) × 100
- ② (의료이익 / 총자본) × 100
- ③ (의료수익 / 자기자본) × 100
- ④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해설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안정성)
- 경영자본 의료이익률 = 의료이익/경영자본 × 100(수익성)
- 총자본 의료이익률 = 의료이익/총자본 × 100(수익성)
- 자기자본 회전율 = 의료수익/자기자본 × 100(활동성)

14. A병원의 손익계산서에서 경상이익은?

A병원 손익계산서 요약표

- 의료수익 : 5억원
- 의료비용 : 3억원
- 의료외수익 : 1억원
- 의료외비용 : 2억원
- 법인세 : 1천만원

- ① 7천만원
- ② 8천만원
- ③ 9천만원
- ④ 1억원

해설

- 의료수익 5억 - 의료비용 3억 = 의료이익 2억 + 의료외 수익 1억 - 의료외 비용 2억 = 경상이익 1억
- 법인세는 당기순이익 산출할 때 적용함

15. M병원의 자료에 의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 의료수익: 100억원
- 의료비용: 85억원
- 의료외수익: 10억원
- 의료외비용: 8억원

- ① 15억원
- ② 17억원
- ③ 25억원
- ④ 30억원

해설

경상이익

계정과목	금액
I. 의료수익	100억
1. 입원수익	
2. 외래수익	
3. 기타수익	
II. 의료비용	85억
1. 인건비	
2. 재료비	
3. 관리운영비	
III. 의료이익(순실)	15억
IV. 의료외 수익	10억
V. 의료외 비용	8억
VI.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순손실)	17억
VII. 법인세비용	
VII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전 당기순이익	
IX.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전입액	
X.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액	
XI. 당기순이익(순손실)	

의료수익 - 의료비용 = 의료이익 + 의료수익 - 의료비용 =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00억 - 85억 = 15억 + 10억 = 25억 - 8억 = 17억

정답

13. ④ 14. ④ 15. ②

## 16. 유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동성이란 병원의 단기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말한다.
- ② 유동성이 좋다는 것은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재고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 ④ 유동성 측정지표로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주로 활용한다.

## 17. 재무유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의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므로 그 수준과 수익성과는 상관이 없다.
- ②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으로 계산한다.
- ③ 흑자도산은 유동성이 극히 좋으면서 수익성이 극히 나쁜 경우에 발생된다.
- ④ 유동비율이 높더라도 당좌비율이 낮으면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 |해설

• 유동비율: 단기채무의 변제능력이 충분한가를 측정하기 위한 비율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나치게 유동자산을 보유하면 자금의 유희화로 인하여 수익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흑자도산은 유동성이 극히 나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당좌비율: 유동비율에 대한 보조비율로 현금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비율도 높을수록 좋다. 당좌자산에는 현금예금, 유가증권, 의료미수금, 받을 어음 등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자산이 포함된다. 유동비율이 높더라도 당좌비율이 낮으면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 18. 유동성 악화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자본조달 곤란으로 단기부채 조달
- ② 외상매입금 조기 상환
- ③ 유동자산 감소
- ④ 손실발생

## 19. 병원의 재무분석 중 단기지급능력, 신용도 및 단기적 자금조달 등을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재무비율분석은?

- ① 안정성비율
- ② 수익성비율
- ③ 활동성비율
- ④ 유동성비율

## |해설

병원의 유동비율은 병원의 유동자산으로 단기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다. 유동비율은 은행대출시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한다.

## 20. 유동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입채무
- ② 예수금
- ③ 선수수익
- ④ 임대보증금

## |해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기대되는 채무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유동성장기부채, 미지급비용 등이 있다.

## 21.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 ① 매입채무
- ② 미지급금
- ③ 선수금
-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해설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기대되는 채무이다.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유동성장기부채, 미지급비용 등이 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비유동(고정)부채이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

## 22.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을 의미하는 것은?

- ① 유동자산 - 유동부채
- ② 유동자산 + 유동부채
- ③ 비유동(고정)자산 - 비유동(고정)부채
- ④ 비유동(고정)자산 + 비유동(고정)부채

**해설** 순운전자본(working capital)이란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fund)이다.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을 뜻하기도 하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이 순 운전자본이다.

## 23. 이자보상률이 높다는 것은?

- ① 병원의 이익 규모에 비해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 ② 병원의 이익 규모에 비해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 ③ 병원의 의료수익 규모에 비해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 ④ 병원의 의료수익 규모에 비해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해설** 레버리지(leverage) 분석

- 레버리지(지렛대)는 비유동(고정)자산의 사용으로 고정비이나 타인자본을 사용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지출하여 병원의 의료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 운영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는 고정비가 총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의료수익이 오르면 의료이익 증가 폭이 오르고, 의료수익이 낮아지면 의료이익의 감소폭이 높아진다.
  - ※ 의료수익 - 의료비용 = 의료이익(0)이 되는 점
-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는 총비용에서 고정재무비 중 총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 의료이익의 증감에 비해 확대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 타인자본의존도 = 부채총액 / 총자본
  - 이자보상비율은 이익에 비해 이자지급액에 대한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고,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급에 문제가 적어진다.
  - 이자보상비율 = (세전순이익 / 지급이자) × 100
  - 이자보상률이 낮다면 이익에 비하여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이 크다
- 결합레버리지(combined leverage)는 운영레버리지 + 재무레버리지를 한 것을 의미하며, 의료수익과 당기순이익의 변화 분석에 사용한다. 결합레버리지가 높으면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이 의료수익의 변화율보다 더 높고, 의료수익이 변동하면 당기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변한다.
  - 총비용 - (고정비 + 고정재무비)의 비중
- 의료비용의 구분: 고정비는 임차료 임금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용 등 의료수익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료비용이며, 변동비는 운영을 위한 임금, 원재료비이다.

## 24. 이자보상률이 낮다는 것은?

- ① 병원의 이익 규모에 비해 이자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 ② 병원의 이익 규모에 비해 이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 ③ 병원의 의료수익 규모에 비해 이자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 ④ 병원의 의료수익 규모에 비해 이자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해설** 이자보상비율은 이익에 비해 이자지급액에 대한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고,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급에 문제가 적어진다.

이자보상비율 = (세전순이익 / 지급이자) × 100

※ 이자보상률이 낮다면 이익에 비하여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이 크다.

25. H병원의 당기 순이익은 5억원, 법인세 등 세금은 2억원, 이자비용은 3억원이다. 이 병원의 이자보상율은 몇 배인가?

- ① 2.4배                      ② 3.3배                      ③ 3.6배                      ④ 4.1배

**해설**

H병원 이자보상률: 채무상환능력지표

이자보상율 = (세전순이익 / 지급이자) × 100

\* 2.3333 = (당기순이익 + 법인세 등 7억 / 지급이자 3억)

26. 재무구조 상태가 좋다는 것은?

- ①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②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③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④ 총자본 중에서 부채비율이 낮다.

**해설**

· 재무구조 상태가 좋다는 것은 총자본 중에서 부채비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 재무구조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총자본 중에서 부채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27. 비교적 저렴한 코스트(cost)의 부채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이 코스트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을 얻기 위하여 이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경영주에게 이익의 증가를 가져다주는 효과는?

- ① 재무 레버리지 효과    ② 영업 레버리지 효과    ③ 시간 레버리지 효과    ④ 이익 레버리지 효과

**해설**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 레버리지의 뜻은 지렛대 작용 혹은 "어떤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수단" 등으로 정의된다. 이를 경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연결하면 고정적인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고 추가적인 자산이나 자금을 얻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유(고정)비를 받침으로 이용하여 추가적인 생산을 하거나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였을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과 이를 통해 추가로 얻어지는 수익을 비교하여 이익의 순수한 증가를 가져다주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기업에서의 레버리지는 영업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 시간레버리지의 세 가지로 흔히 구분된다.

·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 비교적 저렴한 코스트의 부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 코스트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을 얻기 위해 이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경영주에게 이익의 증가를 가져다주는 효과

·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 한 단위의 추가적인 생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증가 효과

· 시간레버리지(time leverage): 시간의 흐름과 각 제품의 순이익에의 공헌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생산제품에 대한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효과(재무관리 영역에서 벗어나는 개념)

28. K병원은 금년 의료계 파업상태로 지금난에 봉착해 있다. 재무비율 분석지표 중 이 병원에서 지향해야 할 지표가 아닌 것은?

- ① 총자본 순이익률을 높여야 한다.  
② 의료미수금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  
③ 의료수익 순이익률을 높여야 한다.  
④ 유동비율을 낮춰야 한다.

29. 화폐의 시간가치 중 현재의 일정금액을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평가하여 산출한 가치는?

- ① 자본가치                      ② 현재가치                      ③ 미래가치                      ④ 순현재가치

**해설**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란 발생시점이 다른 현금에 대해 시간차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 일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환산을 위해 시장이자율이 사용되고 현재의 일정금액을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미래가치(FV future value), 미래시점에서의 일정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discount)해 현재의 일정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현재가치(PV present value)라 한다.

**정답**

25. ① 26. ④ 27. ① 28. ④ 29. ③

## 30. 듀퐁시스템(DuPont system) 비율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듀퐁시스템은 총자본이익률(ROI)을 이공한 재무계획 또는 통제가능기법이다.
- ② 듀퐁시스템은 수익성비율(의료수익 순이익률)과 활동성비율(총자산회전율)을 결합하고 있어 양 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 ③ 듀퐁시스템은 장단기 채무지급능력을 분석할 수 있어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 ④ 듀퐁시스템은 경영자 및 임직원의 업적평가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 |해설

- 재무분석배율을 비율 간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보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듀퐁시스템(DuPont system)이다. 이는 듀퐁회사에 의하여 개발되어 193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무비율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영업성과인 총자본이익률(ROI)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무계획 또는 통제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러한 듀퐁시스템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총자본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에 기초하여 경영자 및 임직원의 업적평가와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지닌다.
- 한편 듀퐁시스템은 자본수익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단기채무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위험변화에 대한 분석수단을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총자본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의 증가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영업위험 및 재무위험이 듀퐁시스템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또한 듀퐁시스템에 의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일시적 현상인지 또는 지속적 현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4~5년간에 걸친 분석을 통해 판단의 오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ROI(return of intestment) - 투자수익률

## 31.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서 현재가치란?

- ① 미래의 현금흐름을 일정한 이자율로 곱한 값을 말한다.
- ② 현재의 현금흐름을 일정한 이자율로 곱한 값을 말한다.
- ③ 미래의 현금흐름을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값을 말한다.
- ④ 현재의 현금흐름을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값을 말한다.

## |해설

화폐의 시간적 가치  
미래의 시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현재의 일정시점의 가치를 환산한 것을 현재가치라 한다.

## 32. 화폐는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러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는 척도는?

- ① 수익률
- ② 시장이자율
- ③ 감가상각률
- ④ 할인율

## |해설

미래의 현금흐름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유동성선호를 반영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시장이자율이다. 시장이자율은 시간이 다른 화폐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또는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 33. 현재 금액이 1,000,000원 이고, 연이자율이 8%일 경우 2년 후의 미래가치는?

- ① 1,600,000원
- ② 1,080,000원
- ③ 1,280,000원
- ④ 1,166,400원

## |해설

화폐의 미래가치  $P_n = P_0(1 + R)^n$  이며,  $P_0$ 는 현금,  $R$ 은 연간 이자율,  $n$ 은 연도이다.  
2년 후의 미래가치는  $P_2 = 1,000,000(1+0.08)^2 = 1,000,000(1.1664) = 1,166,400$ 원

## 34.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기법이 아닌 것은?

- ① 회수연장법
- ② 수익률법
- ③ 비율분석법
- ④ 회계적이익률법

## |해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지? 고려하지 않는지? 투자분석기법 중 비할인기법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종류는 어림셈법(승수법, 수익률법), 비율분석법, (단순)회수기간법(순소득승수법), 회계적이익률(수익률)법이 있다.

## |정답

30. ③ 31. ③ 32. ② 33. ④ 34. ①

35. 개원준비 중인 한 병원은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을 산출한 후 투자가치 평가법에 근거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때 회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가치 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 수익률법(internal rate return)                      ② 순 현재 가치법(net present value)
- ③ 현재가치 지수법(present value index)                      ④ 평균 이익률법(average rate of return)

**해설** 평균이익률의 단점은 첫째, 현금의 흐름이 아닌 장부상의 평균순이익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점, 둘째, 장부상 순이익의 절대액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회폐의 시간적인 가치가 무시되어 현재가치의 개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장부상의 이익과 현금의 흐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의 효과,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법인세 절약액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

36. 비유동(고정)원가를 회수하고 기간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액은?

- ① 순이익                      ② 손익분기점 매출액                      ③ 소요변동비                      ④ 공헌이익

**해설** 공헌이익  
 ① 공헌이익=매출액-변동비  
 ② 공헌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잔액이다.  
 ③ 비유동(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공헌한 몫이다.



## 2. 의료 수요조사 추정

37.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은?

- 어느 병원에서 퇴원한 어느 지역 주민의 연간 실퇴원환자수를 그 지역 주민의 그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실퇴원환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 특정 지역의 의료 수요조사를 위한 진료권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 ① 기여도                      ② 접근도                      ③ 친화도                      ④ 반영도

38. 의료 수요조사를 위한 진료권 분석에 사용되는 친화도(RI) 산출공식은?

- ① (A병원 퇴원환자수/진료권주민 연간 총퇴원환자수) × 100
- ② (A병원 재원일수/진료권주민 연간 총재원일수) × 100
- ③ (A병원 외래방문횟수/진료권주민 연간 총외래방문횟수) × 100
- ④ (A병원 사망자수/진료권주민 연간 총사망자수) × 100

**해설** 친화도(RI: relevance index): 지역주민 의존도, 공급자 의존도, 시장침투 정도

## 39. 친화도(RI)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환자의 지역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시정집유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② 어느 지역 내에서 외래 환자가 특정 병원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에 의해 친화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 ③ 실환자수보다는 연환자수에 의하여 지역 전체 주민이 특정 병원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④ 어느 병원에서 퇴원한 어느 지역 주민의 연간 실퇴원환자수를 그 지역 주민의 그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실퇴원환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 40. 환경분석(SWOT)의 구성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강점                      ② 기회                      ③ 성장                      ④ 약점

【해설】 SWOT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SWOT	긍정적 평가(유리)	부정적 평가(불리)
내부요인(통제가능)	SO(Maxi-Maxi) 모두 권장	WO(Mini-Maxi) 극복/전환
외적(요인)환경(통제불능)	ST(Maxi-Mini) 최소화/극복	WT(Mini-Mini) 모두 최소화

## 41. 외국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관세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CIF가격이란?

- ① 본선 인도가격(FOB) + 운임                      ② 본선 인도가격(FOB) + 보험료
- ③ 본선 인도가격(FOB) + 운임 + 보험료                      ④ 본선 인도가격(FOB) + 운임 + 보험료 + 관세

【해설】 C.I.F(Cost Insurance & Freight) 선복인도가격에 운임 +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  
 F.O.B(Free On Board) 선복인도가격(운임과 보험료 전가격)  
 ※ 선복(船腹)인도가격은 물건을 사서 배(船)에 실을 때까지의 비용이다.

## 42. 개원 후 소요 운전자분을 추계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 ① 재고자산 선구매액                      ② 의료미수금 증가분
- ③ 개원초기의 운영적자                      ④ 건물 수리비

【해설】 소요운전자분(자기자본+타인자본)은 재고자산 선구매액, 의료미수금 증가분, 초기운영적자 등 있다.

## 43. 내과에 3일 재원, 일반외과로 전과하여 7일간 재원 후 퇴원(진료비 백만 원)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입원환자수 10일은 일반외과에 집계해야 한다.
- ② 입원진료비 백만 원은 일반외과에 집계해야 한다.
- ③ 10일 중 3일은 내과, 7일은 일반외과에 집계해야 한다.
- ④ 입원진료비는 일반외과에 계상해주고 연입원환자수는 ③과 같이 집계해야 한다.

【해설】 입원 중 전과환자는 입원료 계상(計相)과의 환자로 분류한다.

44. 입원 병상수 계산 시에 제외되는 병상은?

- ① 일반병실 병상      ② 분만실 병상      ③ 감염실 병상      ④ 보육기

**해설**

가동병상수는 허가병상과 달리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병실에 실제 투입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을 말한다.  
 · 병상수(病床數) 인정 - 일반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실병상, 보육기  
 · 병상수(病床數) 제외 - 응급실, 분만실, 회복실, 신생아용 배지넷, 주사실, 인공신장실  
 ※ 일반병동의 병상(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2부-제장 기본진료료-2.입원료 등-라-(2))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 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 등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45. 병상이용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재원환자수를 허가병상으로 나눈 것이다.  
 ② 연재원환자수를 연가동병상수로 나눈 것이다.  
 ③ 조정환자수를 일평균가동병상수로 나눈 것이다.  
 ④ 조정환자수를 연가동병상수로 나눈 것이다.

**해설**

· 병상이용률 - 연재원환자수를 연가동병상수로 나눈 것이다.  
 · 병원이용률 - 조정환자수를 연가동병상수로 나눈 것이다.

46. 병상구분 및 환자진료 실적을 참조하여 병상이용률을 계산한 결과가 옳은 것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병상구분: 일반병상 316, 중환자병상 23, 보육기 11, 분만대기병상 10, 수술실 5  
 · 환자진료실적: 연외래환자수 159,784명, 총재원일수 110,376명, 입원실 인원 7,637명, 외래진료 일수 300일

- ① 80%                      ② 84%                      ③ 88%                      ④ 90%

**해설**

· 수술실의 병상은 운영병상이 아니므로 총가동병상은 316 + 23 + 11 + 10 = 360  
 · 병상이용률은 (총재원일수 / 연가동병상수) × 100이므로 110,376 / (360병상 × 365일) × 100 = 84%

47. 입원환자 기준 조정환자수는?

가.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 부담 진료비 300,000원  
 나. 외래환자 1인당 1일 평균 부담 진료비 100,000원  
 다. 총재원일수(연입원환자수) 100,000일(명)  
 라. 연외래환자수 300,000명

- ① 200,000명              ② 300,000명              ③ 400,000명              ④ 19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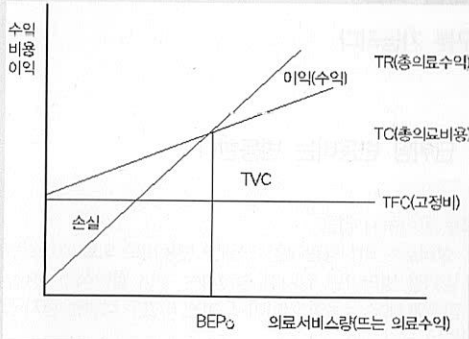
**해설**

조정환자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비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며, 조정환자수 총재원일수 + 연외래환자수 × (외래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 /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로 계산된다.

· 조정환자수 = 입원환자수 + 외래환자수 × (외래환자 1인당 진료비 /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  
 \* 200,000명 = 100,000명 + {(300,000명 × 100,000원 / 300,000원)}  
 1) 300,000명 × 100,000원 = 30,000,000,000  
 2) 30,000,000,000 / 300,000원 = 100,000  
 3) 100,000명 + 100,000 = 200,000명



• 손익분기도표



$BEP_R = TFC / 1 - V/PP$   
 $BEP_0 = TFC / P$

• 선형방정식

$TR = TC + TM$ -----(1)	$BEP_0 = (TFC + TM) / (P - V)$ -----(3)
$TC = TFC + TVC$ -----(2)	$BEP_R = (TFC + TM) / (1 - V/P)$ -----(4)
TR ----- 총의료수익	TC ----- 총의료비용
TM ----- 총의료이익	TFC ----- 총고정비
TVC ----- 총변동비	$BEP_0$ ----- 손익분기점의 환자수
P ----- 환자인당일평균진료비	V ----- 환자인당일평균변동비
$BEP_R$ ----- 손익분기점의 의료수익	

• 손익분기점분석의 활용분야와 한계점: 활용분야는 병원의 적정의료수익규모 또는 적정환자수의 결정, 목표이익달성을 위한 의료수익 및 허용비용의 규모, 일정 의료수익 하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이익의 규모, 수가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 고정비 변동비의 변화에 따른 의료이익의 변화, 수가결정, 진료수준(진료량)의 결정, 설비투자가 의료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고, 한계점은 손익분기점분석에서는 총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최소자승법 등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다수 기간의 자료가 필요하여 실무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의료수익, 의료비용 및 의료이익이 선형관계 즉, 단위당의 진료비와 변동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선형관계에 있다. 즉, 진료비와 단위당 변동비도 의료서비스량의 증감에 따라 다소 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정비도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면 일시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손익분기점분석이 원칙적으로는 단일서비스인 경우에 매우 유용하기법이다. 그러나 병원의 환자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환자 등으로 구성되고, 수많은 서비스가 복합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환자종별로 손익분기점 환자수를 계산해야 보다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숙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기적인 분석에 유용하며, 장기계획에는 적합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은 어렵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51. 손익분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다른 조건이 같고 비유동(고정)비가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 ② 환자 1인당 의료수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높아진다.
- ③ 환자 1인당 변동비가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높아진다.
- ④ 목표이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해설

손익분기점은 의료수익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의료비용을 보상하고 의료이익이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전환점을 말한다. 즉 환자에게 투여되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커지면 이 분기점은 자동으로 높아지게 된다.

손익분기점 = 고정비/(환자당 수익 - 환자당 변동비)

- 수익 - 비용 = 이익(zero부터 이익으로 본다)
- 이익 - 비용 = 수익(○)
- 수입 - 비용 = 수익(×)

## 52. 손익분기점 분석의 이론적 전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비용은 비유동(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 가능하다.
- ② 총수익과 총의료비용은 1차 선형관계이다.
- ③ 모든 기업은 단일 제품만 생산한다.
- ④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총비유동(고정)비와 단위당 변동비는 변동한다.

## |해설

손익분기점 분석의 이론적 전제와 실제적 한계

- (1)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2) 수익과 비용이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선형관계임. 단위당 변동비도 의료서비스량의 증감에 따라 다소 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정비도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면 일시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3) 손익분기점 분석이 원칙적으로는 단일 의료서비스인 경우에 매우 유용한 기법이나, 병원의 경우 다양한 환자군으로 구성 되어 있고 수많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 53. 손익분기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투자된 각종 자산들과의 관계를 측정하여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② 미래시점의 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현재의 일정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 ③ 의료기관의 분석에서 외부 환경의 거시적 환경분석에 주로 사용 하는 방법이다.
- ④ 의료기관 운영에서 총 의료비용을 보상하고 의료이익이 발생 하는 전환점을 말한다.

## |해설

병원에서 손익분기점이란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이 일치하여 의료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말한다.

## 54. A병원의 고정비가 30억 원이고, 환자당 변동비가 40,000원, 환자당 수가가 100,000원일 때 손익분기점(BEP)상의 환자수와 손익분기점상의 수익은?

- ① 환자수 40,000명, 총수익 50억 원
- ② 환자수 50,000명, 총수익 60억 원
- ③ 환자수 50,000명, 총수익 50억 원
- ④ 환자수 80,000명, 총수익 40억 원

## |해설

- 환자 수  $BEPQ = TFC/P - V$   
고정비 / (환자당 수가 - 환자 변동비)  
▷ 환자 수 = 3,000,000,000원 / (100,000원 - 40,000원) = 50,000명
- 총수익 = 환자수 × 1인당 수가 = 50,000명 × 100,000원 = 50억 원

## 55. M 병원에서는 최근 자기공명영상진단(MRI)장치를 구입하였다.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최소 한 1일 몇 건 이상을 촬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 장비구입 및 유지에 따른 비유동(고정)비 12억원
- 촬영 건당 수익 25만원
- 촬영 건당 변동비 5만원
- 연간 외래진료일수 300일

- ① 10건
- ② 15건
- ③ 20건
- ④ 25건

## |해설

- 손익분기점(환자수)  $BEPQ = TFC / P - V$   
TFC: 총고정비, P: 환자1인당일평균진료비, V: 환자1인당일평균변동비
- 환자수 = 총고정비 / (촬영 건당 수익 - 촬영 건당 변동비) = 6,000명  
= 1,200,000,000원 / (250,000원 - 50,000원)
- 1일 당 환자수 = 6,000명 / 300일 = 20명

56. 병원의 조정환자 1인당 진료비는 10,000원이고 비유동(고정)의료비용은 1,000만원, 조정환자 1인당 변동의료비용은 5,000원이다. 이 병원의 손익분기점에서 조정환자수는?

- ① 2,000명                      ② 3,000명                      ③ 4,000명                      ④ 5,000명

해설

손익분기점(환자수)  $BEPQ = TFC / P - V$   
 TFC: 총고정비, P: 환자인당일평균진료비, V: 환자인당일평균변동비  
 • 조정환자수 = 총고정비(TFC) / [P(환자인당일평균진료비) - V(환자인당일평균변동비)]  
 $= 10,000,000 / (10,000 - 5,000)$   
 • 조정환자수 = 10,000,000 / 5,000 = 2,000명

57. 병원 원가계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수가(비 보험급여) 결정 목적                      ② 경영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  
 ③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                                      ④ 결산서 작성 목적

해설

병원원가계산의 목적은 의료수가의 결정, 경영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의 활용에 있다.

58. 비용을 비유동(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자 할 때 가장 정밀하며 신뢰도가 높은 방법은?

- ① 개별비용법                      ② 총비용법                      ③ 산포도법                      ④ 최소지승법

해설

비용분해(cost analysis)  
 (1) 개별비용법-비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2) 총비용법-전기와 당기 또는 전월과 당월 같이 두 기간의 매출액과 비용 합계에서 변동비와 비유동(고정)비를 구분하는 방법  
 (3) 산포도법(scatter graph)-매월의 매출액과 비용 합계를 그래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이 산재된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매출액의 증가비율에 따른 비용의 증가 경향을 포착함으로써 변동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신뢰도는 높지만 눈대중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단순한 경향만을 나타내므로 객관성이 결여됨  
 (4) 최소지승법-산포도법에 의한 비용분해의 방법을 수학의 최소지승법의 공식을 사용해 풀어놓는 방법이므로 신뢰도와 객관성이 모두 높음

59. 손익계산서 비용 계정과목 중 현금 지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되는 것은?

가. 감가상각비	나. 외화환산 손실	다. 보험료
라. 대손상각비	마. 복리후생비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라, 마

해설

지출과 비용  
 • 손익계산서(P/L)상의 경영성과의 계상  
 - 비용(Profit):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위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이다.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B/S)]상의 재무상태의 계상  
 - 지출(Expense): 의료기관에서 자산상의 감소이다.  
 • 현금지출없이 비용처리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상각비, 전입액

60.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비원가 항목(원가로 계산되지 않는)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 풍수해, 도난 등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실  
 ② 정상을 초과하는 소송비, 벌금, 위약금, 연체료 등  
 ③ 법인세, 소득세  
 ④ 시설관리용역비

해설

비원가 항목 (사례)

- (1)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비용: 정상을 초과하는 대손상각비, 파손비 등, 화재·풍수해·도난 등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손실, 소송비·벌금·위약금·연체료 등  
 (2) 투자자산 및 확장용 자산에 대한 제비용: 투자부동산, 출자금 등의 관리비용 및 제세금, 투자자산평가손, 확장용 토지·건물·의료기기 등의 취득·건설 또는 관리를 위한 제비용 및 제세금  
 (3) 이익으로부터 지불해야 할 성질의 비용: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퇴직금 및 임시급여, 창업비, 건설이자, 영업권 등의 상각비, 법인세, 소득세, 기부금, 증여금  
 (4) 현금주의 회계를 택하고 있는 병원의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등  
 (5) 기타: 지급이자와 할인료 등

61. 일반적으로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원가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부금·증여금      ② 환자금식재료비      ③ 국민연금부담금      ④ 연월차 수당

62. 의료기관 계정과목 중에서 원가항목으로 옳은 것은?

- ① 의료부대비용      ② 이자비용      ③ 잡손실      ④ 연구비

해설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원가로 계상되지 않는 항목

- 이상상태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정상초과 대손상각비, 파손비 등 화재, 도난 등 우발적 사고손실, 소송, 벌금, 위약금, 연체료 등
- 투자자산 및 확장용 자산에 대한 제비용으로 투자부동산, 출자금 등의 관리비용 및 세금, 투자자산 평가손, 확장용 토지, 건물, 의료기기의 취득 관리를 위한 제비용 및 제세금 등
- 이익으로부터 지불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출자임원의 상여, 퇴직, 급여, 창업비, 영업권 등의 상각비, 법인세, 소득세, 기부금, 증여금 등
- 현금주의 회계를 택하고 있는 병원의 선급비용으로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등
- 기타 지급이자, 할인료 등

63. 재무적 측면에서의 비영리 의료기관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가치 상승      ② 적정진료      ③ 병원의 사회적 책임      ④ 병원의 생존

해설

비영리 의료기관은 주식가치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 주식을 상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64. 원가계산에서 보조부문이 아닌 것은?

- ① 원무과      ② 의무기록실      ③ 수술실      ④ 총무과

해설

보조부문은 수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부서를 말한다.

65. 의료원가로 옳지 않은 항목은?

- ① 의학교육연구비용      ② 이자비용      ③ 외주용역비용      ④ 급식재료비용

정답

60. ④ 61. ① 62. ④ 63. ① 64. ③ 65. ②



## 70. 원가의 정확한 배부는 어렵지만 계산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 ① 상호 배부법      ② 계제식 배부법      ③ 직접 배부법      ④ 총원가 배부법

## 해설

보조 부문비의 배부방법

- 직접배부법(direct allocation method)은 보조 부문에 집계되는 원가를 주요 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다. 계산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원가의 정확한 배부는 어렵다.
- 계제(階梯)식 배부법(또는 계단식 배부법, step-down method)은 각 보조 부문에 대해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문부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문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차례차례 배부해 가는 방법이다. 정확도가 비교적 높아서 복잡하지 않은 조직에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보조 부문의 배열순서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보조 부문의 수가 많을 경우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 상호 배부법(double distribution method)은 병원은 유기적인 조직체로 각 부문은 모든 부문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보조 부문의 원가를 해당되는 모든 부문에 적절히 배부하는 과정을 무한히 계속 반복해 가는 방법이다.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계산절차가 복잡하고 계산의 양이 많아서 컴퓨터에 의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 준계제식 배부법(semi-step-down method)은 원가 부문을 주요 부문, 진료보조 부문, 관리 부문, 의료사회사업 부문, 교육연구 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에 계제식 배부법을 적용하고 이들 내부의 책임 회계단위 시아엔 직접 배부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 71. 활동기준원가계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 올바른 순서는?

가. 제품의 제조작업에 수행되는 활동을 구분하고 각 활동별로 발생하는 제조원가를 집계함  
 나. 활동별로 원가동인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각 원가집적대상에 배분하기 위하여 원가동인율을 결정함  
 다. 각 원가직접대상에서 사용된 활동수에 원가동인율을 곱하여 원가를 계산함

-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③ 가 → 다 → 나      ④ 다 → 나 → 가

## 해설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단계

- 활동분석단계:경영활동을 기술하고 그 활동의 원가 및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기위하여 병원의 주요활동을 규명
- 활동별 원가집계단계:제품의 제조작업에 수행되는 활동을 구분하고 각 활동별로 발생하는 제조원가를 집계함
- 원가동인의 규명단계:활동별로 원가동인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각 원가집적 대상에 배분하기 위하여 원가동인율을 결정함
- 원가산출 및 원가계산단계:각 원가직접대상에서 사용된 활동수에 원가동인율을 곱하여 원가를 계산함

## 72.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인 원가계산에 비해 배부기준의 수가 많다.  
 ② 활동을 분석하고 원가동인을 파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③ 활동기준 원가기준에 의하면 활동이 경영자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④ 활동기준 원가계산과 전통적인 원가계산 모두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다.

## 해설

활동기준 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ABC)이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반 경제활동의 수행과정에 필요한 활동(活動)에 소요된 경제적 자원의 회생을 화폐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활동기준 원가계산은 전통적인 원가계산과는 달리 활동에 기초하여 원가를 제품에 부과하여 효율적인 원가관리 방법이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은 여러 활동들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각제품별로 활동소비량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원가계산방식에 비해 좀 더 합리적인 원가배부를 목적으로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 4. 사업계획, 예산 등

### 73. 투자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평균이익률법에 의한 평가방법에는 현재가치 개념이 고려된다.
- ②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주로 시중은행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한다.
- ③ 자본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비의 회수기간이 긴 투자안이 선택된다.
- ④ 두 개의 투자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는 순현재가치법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다.

#### 해설

##### 투자가치평가방법

##### · 전통적인 방법

- 평균이익률법은 투자기회에 대해서 예상되는 장부상 연평균 이익을 법인세차감 후로 계산하여 이를 최초의 투자액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이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안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흐름이 아닌 장부상의 평균 수익이란 가지고 계산,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무시되어 현재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장부와 현금흐름 간의 세금효과(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절감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자본회수 기간법은 현금흐름을 통한 투자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자본회수기간(payback period) 즉, 투자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투자에 필요한 최초의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계산이 용이, 모든 사람의 쉬운 이해, 짧은 기간에 걸친 투자회수에 역점을 두므로 위험과 불확실에 대한 정보용이, 자본회수를 통한 기업 유동성 강조 등이고, 단점은 투자액 회수 후, 계속 들어오는 현금 유입을 무시함(투자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나타내지 못함), 현금의 시간가치를 무시함, 투자의 회수만을 고려해 자금의 유동성만 강조하고 정확한 수익률은 무시함, 정확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고려치 않음 등이다.

##### · 새로운 방법

- 내부수익률법은 수익률, 이익률, 투자보수율 등으로 같이 사용하며, 어떤 투자안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장점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평균이익률법, 자본회수기간법보다 합리적).
- 순현재가치법은 할인현금흐름법 중 하나로, 어떤 투자안에 대해 현금유입을 최소한도의 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하고 현금유출도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해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하는 방법, 즉 순현재가치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독립적인 투자안의 채택 여부 및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이용이고, 단점은 복수 투자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상대적인 비교에 적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 현재가치지수법(수익성지수법)은 순현재가치법의 투자결정 방법인 절대치에 의하지 않고, 복수의 투자안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해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 방법이다.
- 비경제적 타당성 고려하여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라(판매자 중심 →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 판단해야 하고, 타당성이 없다면 비경제적인 요인이 경제적 타당성을 보충해주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영리기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결정하지만, 병원은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강한 업종으로 경제성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 74. 투자가치의 평가방법 중 투자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뺀 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 ① 수익성지수법      ② 내부수익률법      ③ 평균수익률법      ④ 순현재가치법

#### 해설

미래의 모든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모든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 바로 순 현재가치이다.

### 75. 투자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은?

- ① 평균 이익률법      ② 자본기간 회수법      ③ 내부 수익률법      ④ 순현재가치법

#### 해설

내부수익률과 순현재가치법 중 대체로 자본코스트(기회비용)를 재투자율로 가정하고 있는 순현재가치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코스트는 병원의 정상적인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병원에 있어서는 여하한 경우이라도 자본코스트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든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정답

73. ④ 74. ④ 75. ④





## 86. 목표관리기법(MBO)이란 무엇인가?

- ① 예외에 의한 관리방법을 말한다.
- ② 상사가 부하의 업무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는 관리방법을 말한다.
- ③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④ 부하에게 목표를 주어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설

목표관리기법(MBO = management by objectives)은 동기부여방법 중의 하나로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MBO의 단계

- 경영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관리책임자는 부하직원에게 병원의 목표를 알려준다.
- 직원은 병원의 목표하에 자기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제시한다.
- 제시된 목표는 검토, 수정, 보완되어 채택된다.
- 채택 목표의 예산화 및 집행, 보고, FEED-BACK

## 87. 목표관리법(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독자와 부하가 함께 목표를 설정
- ② Peter Drucker를 중심으로 개발된 방법
- ③ 직무 수행 당사자와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직무에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
- ④ 업적 평가시에도 감독자와 부하가 공동으로 참여

|해설

MBO(Management By Objective): 피터 드러커(P. Drucker)가 1954년에 제안한 관리기법으로 조직전체의 목표와 각 부분의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전체의 목표와 부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관리자나 일의 담당자가 분담하는 일의 범위안에서 개인목표를 스스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그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해가는 제도를 말한다.

즉,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동시에 각 개인의 자발적 의욕과 창의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BO의 효과는 병원의 목적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수 있고, 직원 상하 간에 의견 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통제나 실적평가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직원 사기를 고양시키고 동기를 부여해 준다.

## 88. 병원 사업계획 수립 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 ① 환자진료계획      ② 당기순이익계획      ③ 의료장비 투자계획      ④ 자금수지계획

|해설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각종 계획 중 대부분의 병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는 환자진료계획, 비유동(고정)자산투자 계획, 인력계획, 이익계획, 자금계획의 다섯 가지 계획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환자진료계획이다.

## 89. 연간사업계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장기전략하의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연간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전략이 수립된다.
- ③ 사업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은 증축 여부의 계획이다.
- ④ 연간예산을 구체화하여 기술한 계획서가 연간사업계획이다.

|해설

사업계획 대부분 사업계획은 1년간의 계획을 나타내나, 이를 장기간에 걸쳐 표현하면 장기 사업계획, 즉 전략적 계획이 되며 이러한 전략이 병원에도 필요하다.

정답

86. ④ 87. ③ 88. ① 89. ①



